

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21. 5. 31.(월)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: 2021. 5. 30.(일) 정오 12:00 이후		총 13쪽
배포일시	2021. 5. 27.(목)	담당부서	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
담당과장	김민아(02-2100-6321)	담당자	오성미 사무관(02-2100-6332)

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져

- 「제4차 가족실태조사」 결과 발표 -

- 1인가구 및 2인 이하 가구 비율 증가, 비혼독신·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져, 가사 분담 등 가족 내 성평등 인식 확산
- 1인가구·한부모 등 가족형태별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,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확충

■ 1인가구 30.4%, 2인 이하 가구 62.1%

- 1인가구 증가세 두드러져('10년 15.8%, '15년 21.3%, '20년 30.4%)
-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31.7%로 감소('10년 48.4%, '15년 44.2%)
- 평균 가구원 수는 2.3명('10년 2.9명, '15년 2.8명)

■ 비혼 독신과 동거,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져

- 비혼에 동의 34.0%, 비혼동거에 동의 26.0%, 무자녀에 동의 28.3%
- 20대의 절반은 비혼(53%), 비혼동거(46.6%), 무자녀(52.5%)에 동의

■ 배우자와의 의사 소통, 대화 시간 등 관계 만족도 상승('15년 51.2%, '20년 57.0%)

- 연령층 낮을수록 가사 분담과 배우자 관계 만족도(20대 78.0%, 30대 67.9%) 높아
- 가사 수행은 여전히 '아내' 중심, 30세 미만 부부는 가사 분담 비슷(집안일 56.4%, 자녀양육 49.2%)

■ 1인가구 중 50대 이상 고령층 많고 돌봄과 가사, 주거 안정 지원 원해

-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고령층(61.1%)
- 1인가구의 72.1%가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
- 고령층은 돌봄과 가사 지원, 20-30대는 주거 안정 지원 원해

■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를 반영한 지역 기반의 가족 서비스 강화

-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등 가족형태별·생애주기별 지원 확대
- 가족 변화에 대응한 정책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충,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등

-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5월 28일(금), 전국 10,9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2020년 가족실태조사」 결과를 발표했다.

조사 개요

- 본 조사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0조에 따라 가족의 삶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중장기 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*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다.
 - * '20년 「건강가정기본법」 개정으로 기존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변경되었으며, 직전 조사는 2015년에 실시되었음
- 이번 조사는 대상 가구의 12세 이상 가구원 면접을 통해 가구 특성,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, 가족 형성 및 변화, 가족 관계, 일과 돌봄 등을 조사하였고, 1인가구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처음으로 추가했다.

2020년 가족실태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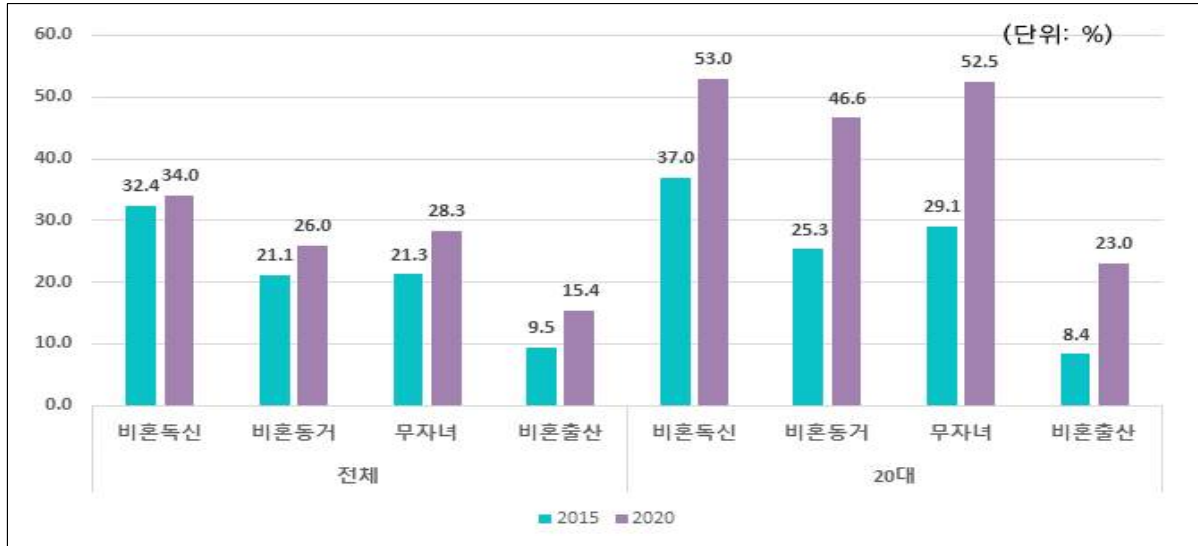
- (조사명) 2020년 가족실태조사(국가승인통계 제15401호) (제4차)
- (법적근거)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
- (조사기간) 2020. 9. 8. ~ 9. 18.
- (표본규모·조사대상) 전국 10,997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
- (조사방법)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(코로나로 유치조사* 병행)
 - * 설문지를 배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작성하도록 한 후 방문 회수하는 방식
- (조사내용) 가구 특성,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, 가족형성 및 변화, 가족관계, 일과 돌봄, 가족여가 및 참여,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, 1인가구 생활실태 등
- (조사기관) 한국여성정책연구원(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), 통계청(조사 실시)

조사 결과

- 「2020년 가족실태조사」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
- (가구 특성) 평균 가구원수는 2.3명으로, '15년에 비해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30.4%(‘15년 21.3%)를 차지하고 있으며,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31.7%(‘15년 44.2%)로 크게 감소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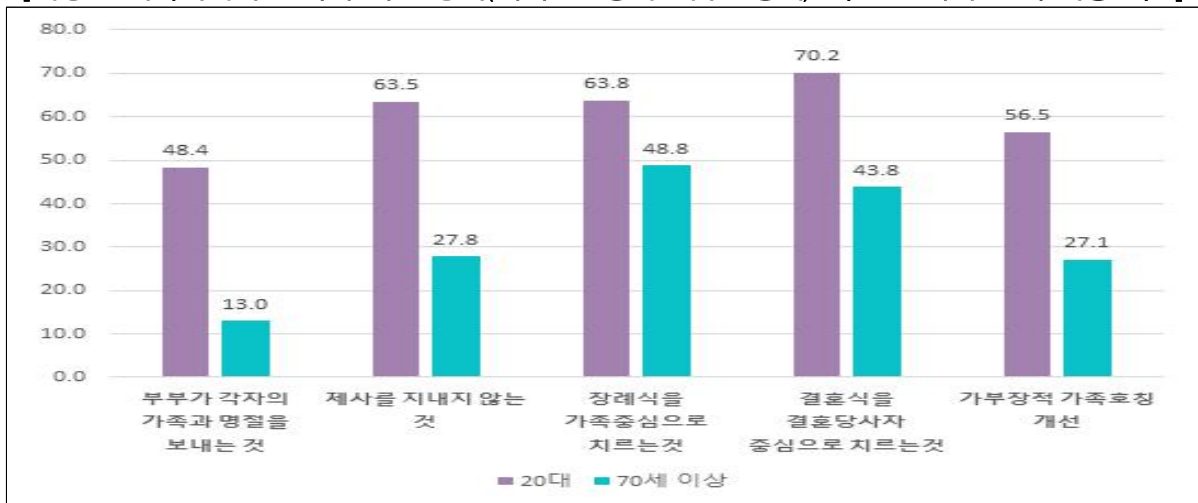
- (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) 가족의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한 수용도가 '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, 특히 20대의 절반 정도가 비혼 독신(53%), 비혼 동거(46.6%), 무자녀(52.5%)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

[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동의(대체로 그렇다+매우그렇다) 비율 - '15년과 비교]



- (가족 의례) 결혼식을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(60.3%),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10명 중 6명(58.9%)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, 70세 이상도 절반 가까이 동의(당사자 중심 결혼 43.8%, 가족 중심 장례 48.8%)하고 있어, 전통적 개념의 가족에 기반한 가족 의례에 대한 인식이 직계가족(부모와 자녀)이나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.
 - 하지만,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가부장적·위계적 가족 호칭을 개선하는 것에 20~40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반면, 70세 이상의 동의 비율은 27% 수준에 그치며 세대별 격차를 보였다.

[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동의(대체로그렇다+매우그렇다) 비율-20대와 70세 이상 비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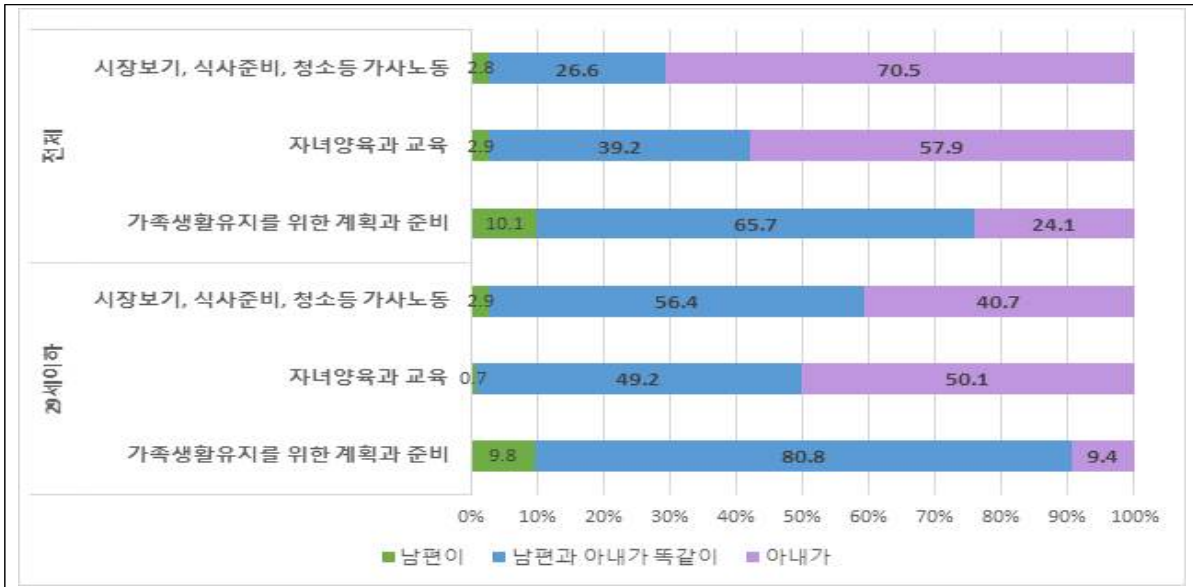


- (비혼 동거)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2.8%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. 그중 세 명 중 한 명이 향후 혼인 신고 계획이 없다 (29.7%)고 답했으며, 고령층일수록 혼인 신고 계획이 없는 것(60대 59.5%, 70대 이상 75%)으로 나타났다.
 - 비혼 동거 사유로는 “경제적인 이유(31.0%)”, “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(18.9%)”, “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(18.6%)” 순이었다.

- (배우자와의 관계)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,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, 의사 소통 및 전반적인 만족도는 57%로 ‘15년(51.2%) 대비 5.8%p 높아졌으며, 특히 20대(78%)와 30대(67.9%) 젊은 연령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.

- (부부의 가사 수행) “시장보기·식사준비·청소 등 가사 노동”과 “자녀양육·교육”을 아내가 하는 비율이 각각 70.5%와 57.9%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,
 - 29세 이하는 부부가 똑같이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(가사 노동 56.4%, 자녀양육 및 교육은 49.2%(해당없음 제외)),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[부부의 가사수행(해당없음 제외)]



○ 그러나,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과 관련하여 자녀 등·하원(교), 일상 생활 돌봄 등 9개 모든 항목에서 아내가 도맡아서 수행하고 있었으며, 특히 “준비물 챙기기”(83%), “일상생활 돌봄”(77%), “자녀학습 관리”(74.9%)에서 높았다.

□ (부모-자녀와의 관계) 청소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67.4%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'15년 대비 5.7%p 상승했으며,

○ 청소년 자녀 중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와의 관계 65.6%, 어머니와의 관계 79.6%였다.

[가족관계 만족(대체로 만족_ 매우 만족) 비율]



- 성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63.2%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었으며, 부모·자녀 간 지원은 “정서적 지원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 - 부모가 자녀에게 “경제적 도움”을 받는 경우는 32.5%로 ‘15년에 비해 4.7%p 하락했으며, “정서적 지원”을 받는 경우는 56.7%로 6.4%p 증가했다.
 - 한편,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 생활비 마련 방법을 조사한 결과, “부모님 스스로 해결한다”는 응답이 61.4%로 ‘15년(41.6%) 대비 19.8%p 증가하여, 부모 자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원보다 정서적 친밀성과 유대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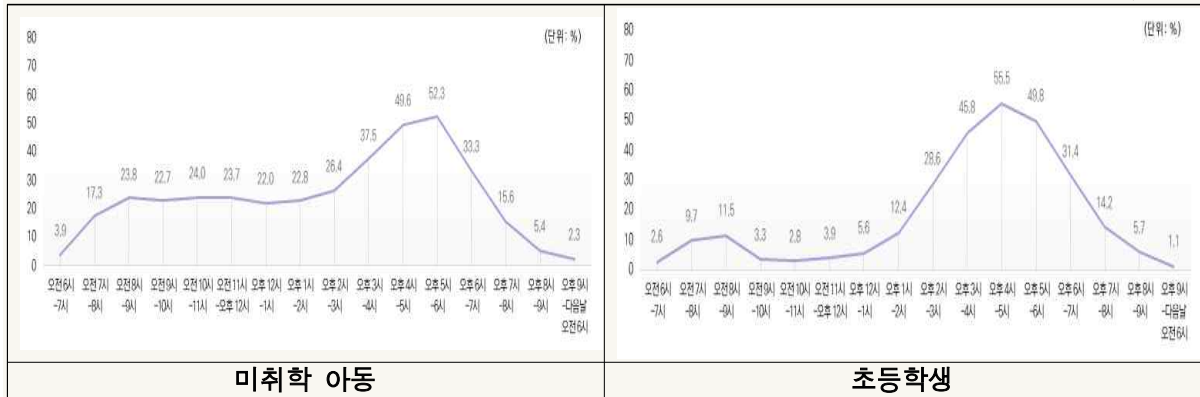
[성인 자녀 간 상호 지원 비율(부모 입장)]



- (자녀 돌봄) 영유아의 82.3%가 돌봄 기관(어린이집 61.0%, 유치원 35.6%)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 돌봄자는 아이 어머니가 87.4%, 조부모가 9.1%라고 답했다.
 - 초등학생의 경우, 방과후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 42.1%, 학원 37.7% 순으로, ‘15년 학원 60.7%, 집 19.0%와 비교하여 학원에서 보내는 비율이 줄고 집에서 지내는 비율이 높아졌다.
 - 또한, 응답자의 절반은 영유아, 초등학생 모두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가 오후 4~6시라고 답했으며, 초등학생의 경우 오전 7~9시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아,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]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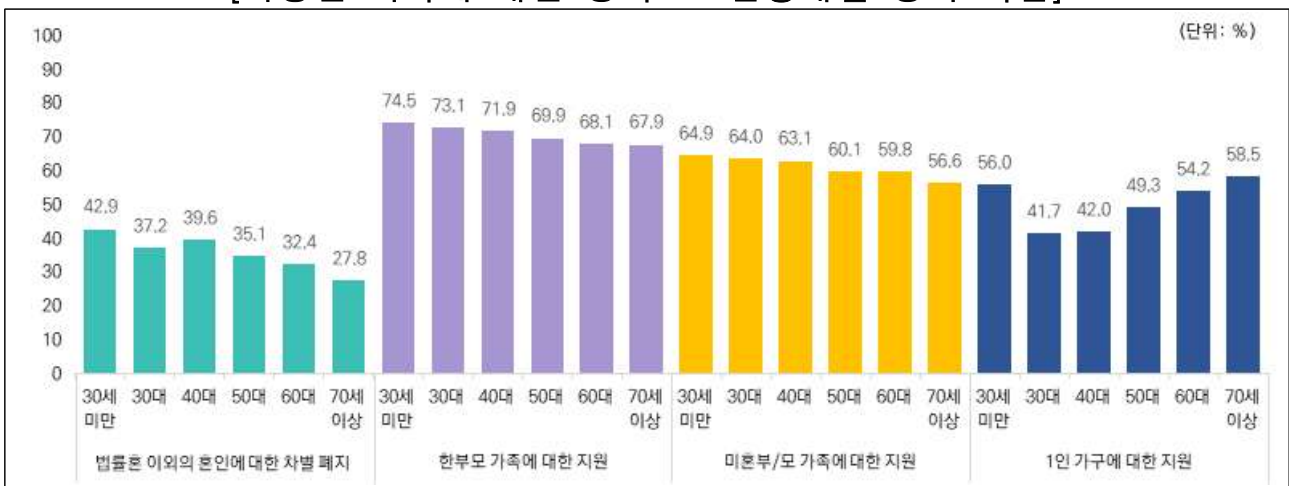
- (질병, 장애가 있는 가족 돌봄) 전체 가구의 4.8%가 “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다”라고 응답하였으며,
 -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(29.7%), 신체적 고단함(26.6%), 정신적 스트레스(26.2%) 순으로 응답해 주 돌봄자의 실질적 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(가족 지원 서비스) 가장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로 노인돌봄지원(23.3%), 가족여가·문화프로그램 지원(14.3%), 임신·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 교육·상담지원(9.9%) 순으로 나타났으며,
 - 연령대별로 20~30대는 임신·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, 40대는 가족여가·문화 프로그램 지원, 50대 이상은 노인 돌봄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[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수요(1순위)]

20대	30대	40대	50대	60대	70세 이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 교육상담 지원 18.6% • 취업지원프로그램 17.6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 교육상담 지원 20.8% • 아이돌봄서비스지원 18.3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20.4% • 노인돌봄지원 11.2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인돌봄지원 22.6% • 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18.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인돌봄지원 37.3% • 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10.2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인돌봄지원 60.9% • 노인을 위한공간 제공 13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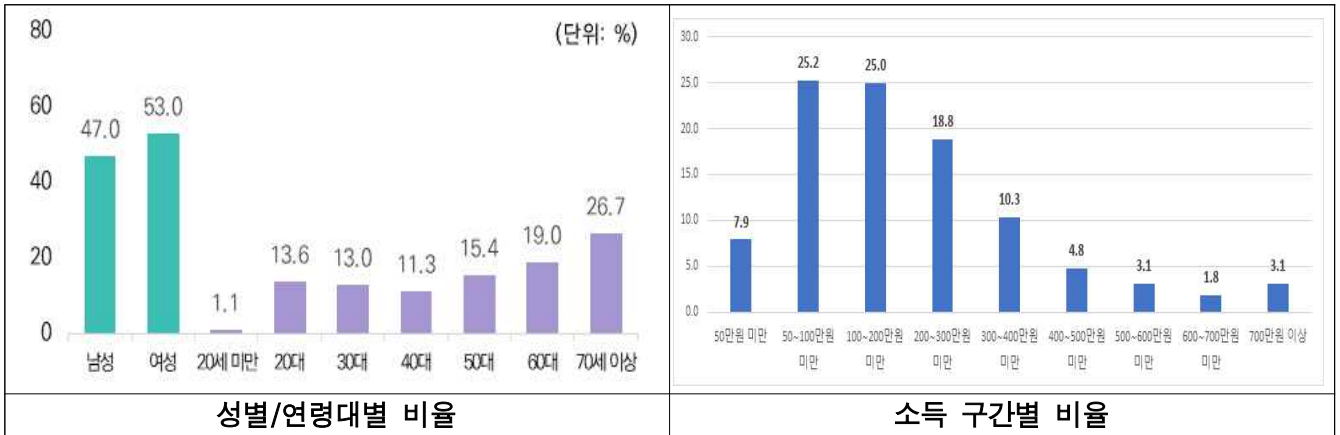
-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한부모 가족 지원(70.7%)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, 미혼부·모 가족 지원(61.3%), 1인가구 지원(49.1%), 법률외 혼인(사실혼, 비혼동거)에 대한 차별 폐지(35.7%) 순으로 답했으며,
- 연령이 낮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정책 필요성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, 1인가구 지원 항목은 20대(56.0%)와 70세 이상(58.5%)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.

[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- 연령대별 동의 비율]



- 올해 처음 실시한 1인가구 대상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.
- (1인가구 특성) 여성(53%)이 남성(47%)보다 많고, 연령별로 70세 이상(26.7%), 60대(19.0%), 50대(15.4%)로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1인가구의 과반(61.1%)을 차지하고 있으며, 혼인상태는 미혼 40.2%, 사별 30.1%, 이혼 또는 별거 22.3%, 유배우 7.4%로 나타났다.
- 소득은 월 50~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대가 각각 25%로 가장 많고, 월 200만 원대가 18.8%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았다. 거주 지역은 경기도(21.0%), 서울(20.6%)의 비율이 높고, 나머지 시·도의 1인가구 비율은 10% 미만으로 나타났다.

[1인가구 특성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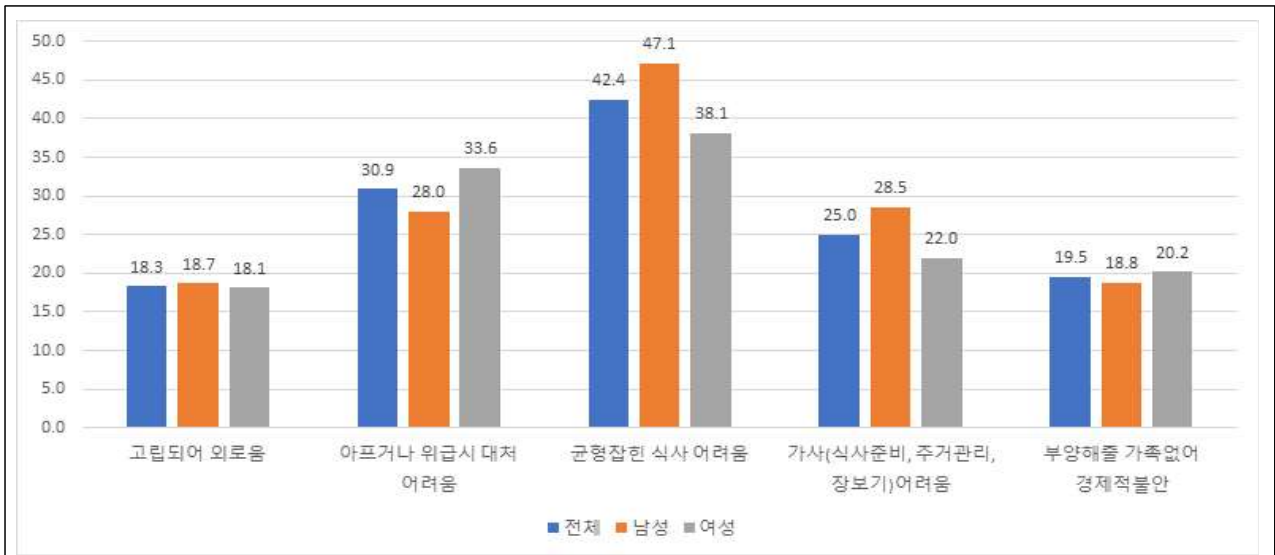


- (1인가구 생활)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“학업이나 직장(취업)”(24.4%), “배우자의 사망”(23.4%), “혼자 살고 싶어서”(16.2%) 순으로, 20~40대는 학업·취업 사유가, 60~70세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응답했다.
- 생활비는 본인이 마련한다는 비율이 69.5%로 가장 높았으며, 20대의 23.5%는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, 60대의 24.7%와 70세 이상의 45.7%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.
-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거비(35.7%), 식비(30.7%), 의료비(22.7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주거비 부담은 20~50대에서 비교적 높고 (20대 43.2%, 30대 53.0%, 40대 49.4%, 50대 40.5%), 식비 부담은 20대 이하(12-19세 51.6%, 20대 45.1%), 의료비 부담은 60대 이상(60대 26.4%, 70세 이상 55.5%)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.
- 따로 사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양을 하는 비율은 13.0%(부모 6.7%, 자녀 5.7%, 배우자 3.6%)에 달했으며, 연령별로 30~40대는 부모, 50대는 자녀 (17.2%)에 대해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따로 살고 있음에도 가족을 돌보는 비율은 7.9%였다.

□ (1인가구의 어려움) 전 연령에 걸쳐 “균형 잡힌 식사”가 가장 어렵다 (42.4%)고 답했으며, “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”(30.9%), “가사”(25.0%)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다. 특히, 균형 잡힌 식사 및 가사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남성(47.1%)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1인가구의 어려움- 성별]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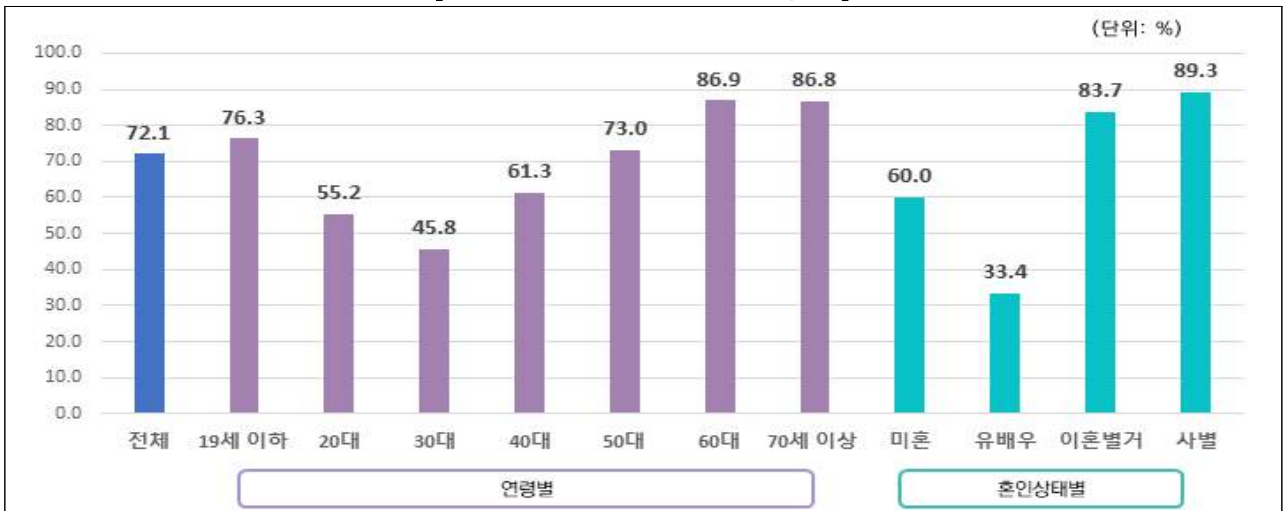
○ “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하여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”고 답한 비율은 15.2%였으며, 여성보다 남성이(남성 20.4%, 여성 10.6%), 연령이 높을수록(50대 18.4%, 60대 21.4%) 사적 관계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

[문제와 걱정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 ‘없음’ 비율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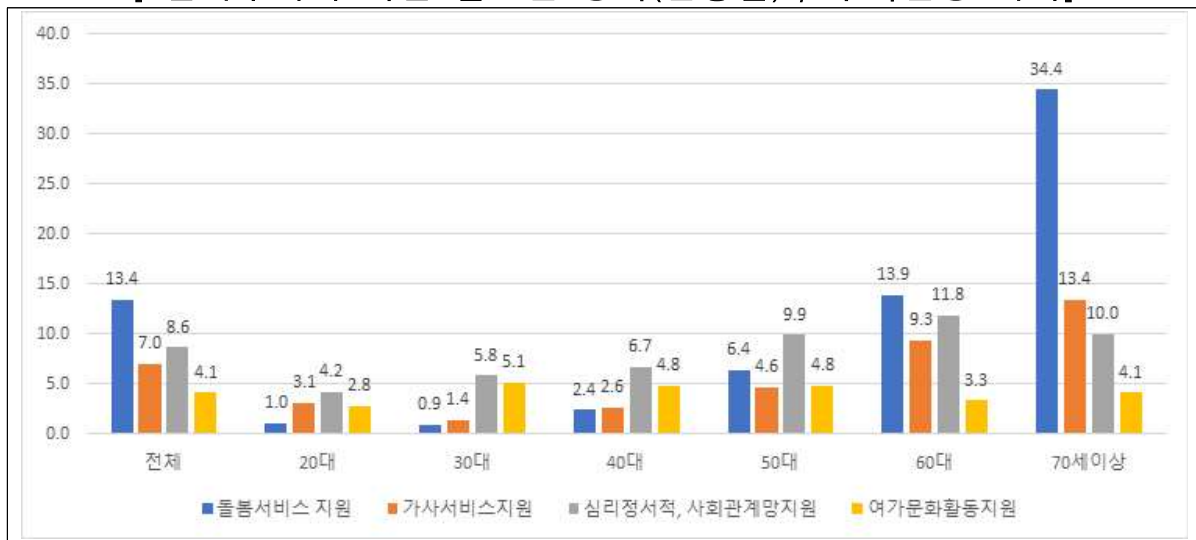
- 1인가구 중 “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다”라고 대답한 비율은 72.1%로 매우 높았으며, 연령이 높을수록 혼자 살 의향이 있는 비율이 높았고, 20대의 55.2%, 미혼인 경우 60%도 혼자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.

[향후 혼자 살 계획 유무]



- (1인가구 지원 정책) 필요한 정책으로는 “주택 안정 지원”(50.1%)이 가장 높았으며,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거 안정의 요구가 80%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(20대 81.4%, 30대 80.2%, 40대 66.0%, 50대 56.5%, 60대 36.2%, 70세 이상 18.0%).
-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연령별 편차를 보였는데, “돌봄 서비스 지원”은 전체의 13.4%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, 다른 연령대에 비해 70세 이상(34.4%)에서 높은 수요를 보였고,
 - “심리 정서·사회적 관계망 지원”은 전체의 8.6%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0대 이상의 요구도가 높았다.(50대 9.9%, 60대 11.8%, 70세 이상 10.0%)
 - “가사 서비스”는 전체의 7.0%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60대(9.3%), 70세 이상 (13.4%)의 요구도가 높아, 전체적으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별·연령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.

[1인가구에게 지원 필요한 정책(연령별) / 주택안정 제외]



정책 추진 계획

- 여성가족부는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와 가치관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, 가족 형태별 생애주기를 반영한 지역 기반의 가족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먼저,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·중장년·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*하고 고독·고립 방지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,

[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프로그램 (예시)]

구분	주요 프로그램
청년	사회 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·경제·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 교육
중장년층	홀로서기 심리상담·교육, 자기 돌봄·일상 관리 교육, 생애후반기 준비 교육
고령층	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, 심리상담, 인생 되돌아보기,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

- 가족 형태의 다변화에 대응하여,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돌봄 및 교육·상담·소통 등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*한다.

* (가족센터 설치 확대) '20년 70개소 → '21년 97개소(착수연도 누계) → 단계적 확대

○ 또한, 다양한 가족의 삶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“세상모든가족함께” 캠페인*을 연중 실시하고,

* (주요내용) “세상모든가족 함께, 약속해요” 챌린지, 시설 종사자·부모 등 대상별 교육 개발 및 정부간행물 등 모니터링·개선 권고,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, 가족 사진전 등

- 가족 형태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「건강가정기본법」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평등한 가사·돌봄 정착을 위해 자녀 등을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, 자조모임, ‘아빠 교육’, 상담 등을 지원하고,

-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뿐만 아니라 주민이 함께 지역 맞춤형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육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*를 확대하고, 돌봄공동체* 활동을 지원한다.



* (공동육아나눔터) 부모 등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 공간 제공, 품앗이 구성·지원, 장난감·교구 대여 등 (‘21년 331개소)

* (돌봄공동체)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돌봄을 매개로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 (‘21년 10개 지역 44개 공동체 활동 지원)

□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, 모든 가족을 차별 없이 포용하며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.”라고 강조하며,

○ “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확대하고,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별첨】 2020년 가족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본

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